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6)	봉헌 (211)	성체 (178)	파견 (19)
---------	---------	----------	----------	---------

<p>제1독서 욥 7,1-4.6-7 화답송 시편 147(146-147),1나코-2.3-4.5-6(◎ 3기 참조)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 제2독서 1코린 9,16-19.22-23 복음환호송 마태 8,17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 마르 1,29-39</p>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8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2/4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11	유 요한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미사책대금
	\$200	\$	\$550	\$2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0	김 요아킴/ 고 안나	2/2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1/27	김 유스티노/김유스티나	3/3	오 베드로/ 오 루시아
2/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2/10	김 마론/ 김 헬레나	3/17	이 글라라/ 김 글라라
2/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3/24	이 요한/ 이 마틸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오는 성체조배는 3 월 1 일 입니다.

공동체 소식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오는 임원회의는 2/11/18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00 문의: 박 바오로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인공동체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박은진-벨라렛다 자매님, 정이진-루시아 자매님

정세현-레오 형제님, 황연경-안나 자매님, 녀: 정한나-아나스타샤

황인범-가롤로 형제님, 자: 황태양-스테파노, 녀: 황지호-스텔라

**** 성가책을 돌려주세요 ****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가정으로 가져가신 성가책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매일미사 책값 안내

올해 미사책값이 일년치 50 불, 권당 5 불 로 책정 되었습니다.

본당 재정 사정으로 미사책 값을 납부하신 수 대로 책을 주문하고 그 분에 한하여 미사책을 나눠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성경공부 - 마르코복음과 함께 (매주 금요일)

성경공부방 첫번째 모임이 다음주 금요일(2/9) 오후 7 시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시는 분 은 마르코 복음 1 장과 2 장을 필사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해당 복음서 2 장씩을 필사하시고, 그것을 금요일 마다 함께 모여 통독하고 나눔을 갖을 계획입니다.

한인공동체 이메일 개설 sanclemente.kc@gmail.com

교우들의 새로운 소식등 공지를 원하시는 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조식 봉사 3 월 13 일(화) st. Vincent de Paul center

봉사해 주실 분들은 아침 7 시 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문의: 이 그레이스 자매님

십자가의 길 2 월 16 일오후 7 시 ~ 매주 금요일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이 2 월 16 일 금요일 오후 7 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의 이삭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정희선 카타리나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이랬습니다. 제가 아직도 과로 했던 30대 대학교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사람을 몹시 싫어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이들 앞에서 멋진 언어로 정의를 부르짖곤 했는데, 실상 그 사람의 행동은 그가 하는 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가 위선적일지언정, 사실 그건 제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었던건만, 저는 매우 예민하여 사사건건 그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조그마한 권력을 갖게 된 그가 그 위치를 이용하여 나를 거침없이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제 마음도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기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마음속에서 그를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기계적으로 무조건 용서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용서가 안 돼서, 저는 주님의 기도를 외우면서 먼저 타인을 용서할 수 있을 때에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자신을 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다른 많은 생각이 저를 엄습해 오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누가 그토록 큰 죄를 지었던단말인가.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한 것일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그를 미워하던 마음을 조금씩 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당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미움과

용서의 감정에서 출발하였으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한 발자국씩 주님 앞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미워질 때면, 그래서 제 마음이 산란하고 편치 않을 때면, 주님의 기도를 바치곤 합니다. 저를 다시 바라고 미움의 상대를 다시 바라봅니다. 제 마음이 힘들 때, 제가 기대어 의지할 주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 주년을 맞던 1984년, 저는 세례를 받았습시다. 제가 세례를 받겠다 하자 오래 냉담 중이었던 남편 프란치스코가 누구보다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적으로도 성가정의 모범을 닦아가려는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내 인생의 어느 부분도 허투루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 조각들 하나하나가 이어지고 모아져서 이제 비로소 커다란 퍼즐이 완성되어감을 느낍니다. 내가 매우 미워했던 그 사람과 만남도, 그로 인해 나의 신앙심이 자라나 세례로 열매 맺게 되었던 것을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성체를 영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미사 때 성체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 지켜야 하는 태도로 공심재(空心齋, Eucharistic fast)가 있습니다. 공심재는 영성체를 하기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 물과 약 외에는 음식과 음료를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교회법 제919조 1항) 환자나 노인들은 형편에 따라 공심재를 지키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심재는 마음과 몸을 비워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정성의 표현입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